

END POVERTY CAMPAIGN

ANGKAL TEAM IN CAMBODIA



Contents

1

Time line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 있었던 시간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2

Topic selection

주제를 정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왜 그러한 주제를 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Campaign activity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과 어떻게 캠페인을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Feeling

End Poverty를 하는 동안 팀원들이 느꼈던 점을 적어보았습니다.

Part 1

Time line





타임 라인

9월 27일 ~ 10월 10일

1차 주제 선정

10월 14일 ~ 10월 15일

2차 주제 선정

10월 14일

한국 사무국으로부터 피드백

10월 18일

2차 피드백

10월 15일

OPA 방문

10월 21일

YMCA OPA 담당자에게
계획서 제출 및 승인

10월 18일 ~ 10월 20일

3차 주제 선정

10월 23일

OPA 담당자로부터 캠페인 불가
소식 및 배너 붙이기 & 판넬 제작

10월 22일

사진찍기 활동 완료 및 캠페인에
사용될 생수병에 배너 제작

10월 24일 ~ 10월 31일

허가 요청 기다림 및 계획수정

10월 24일

캠페인 장소인 대학교의 승인 및
정부에게 캠페인 허가 요청

11월 8일

YI 에서 캠페인 활동

11월 1일

YLC 에서 캠페인 활동

Part 2

Topic selection



1차 주제 선정

마약 관련 교육 in Yi - SDGs 중 3번, 4번

양치 교육 in Yi -SDGs 중 3번 4번

한국 체조 in OPA -SDGs 중 3번

청소 및 간이 정수기 만들기 in OPA -SDGs 중 3번 6번

나무심기 in OPA -SDGs 중 15번

경제 교육 in Yi -SDGs 중 8번

주제

노인층과 함께하는 체조교실

배경

10월 1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캄보디아 YMCA의 OPA(Old People Association) 커뮤니티에서 10월 14일에 노인의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행사를 YMCA관계자들과 Royal university 자원봉사자들과 라온아띠 앵콜팀이 같이 진행하기로 했다. OPA 사람들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약 500명정도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앵콜팀은 진행과 OPA행사를 위한 홍보를 도맡아서 준비하였다. 이에 더해 앵콜팀은 10월 17일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계기로 OPA 커뮤니티의 노인분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조교실을 진행하고자 기획했다.

목표

SDGs Goal 3인 Good health and well-being을 취지로 한 노인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증진시키고, 꾸준한 목표의식을 고취시켜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도록 만든다.

내용

1. 공터에서 노인분들과 체조를 진행하기 위해 음악을 준비하고 노인분들이 모이도록 돕는다.
2. 우리나라의 보편적 체조 중 하나인 새천년 체조를 소개한다.
3.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압법과 스트레칭 방법을 소개한다.
4. 라온아띠 팀이 체조를 주도하여 노인분들이 체조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1차 피드백

하지만 사무국으로부터

-“단순히 함께 한국의 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들이 스스로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에도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다.”

-“캄보디아의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 이유와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조사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피드백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앵콜팀은 OPA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 이유와 사회적 배경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캄보디아에는 킬링필드라는 아픈 역사를 가졌고 그로 인한 경제적 빈곤과 정신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앵콜팀은 평소 볼 수 있던 경제적 빈곤에 초점을 맞추는게 아니라 정신적 빈곤인 ‘외로움’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OPA 방문

캄보디아의 정신적 빈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캄보디아의 문화에 더 알아보기 위해 OPA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결과 OPA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빈곤은 혼자 사는 외로움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몇가지 주제를 준비하여 직접 주민들에게 여쭙어 의견을 얻었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페트병에 화분 기르기라는 주제는 아이들의 장난으로 화분이 분실되거나 망가질 수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또 다른 주제인 사진 스튜디오는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OPA 사람들을 흡족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진 스튜디오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차 주제 선정

뜨개질

나무심기 및
텃밭

꽃꽂이

체조 알려주기

사진 찍어 주기

주제

OPA 주민들과 함께하는 힐링 스튜디오

배경

OPA는 60세 이상의 가난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로 대다수는 킬링필드로 인한 정신적 고통, 유가족을 잃은 슬픔 등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앵콜팀은 OPA 이면에 담겨있는 '킬링 필드' 라는 사회적 배경을 통해 '외로움' 을 주민들의 가장 큰 빈곤이라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환경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페트병 화분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화분을 만들면 도난 위험이 크다는 주민들과 OPA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 2 계획이었던 사진 스튜디오를 기획하였습니다.

2차 회의 결과 1차 계획서로 제출하였던 PHYSICAL TRAINING (한국 체조) 는 마을의 사회적 배경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OPA 소속 자원 봉사자들과 토론한 결과 주민들이 정신적 빈곤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표

세계 빈곤의 날을 맞이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인 SDGs 중 3번 문항인 건강 증진과 웰빙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내용

OPA community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족 사진 뿐만 아니라 OPA 주민들의 현재 추억을 남기기 위한 사진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캄보디아 앵콜팀은 OPA 주민들이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사진 한 장조차도 찍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러한 OPA 주민들에게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는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필요한 노인분들에 한하여 영정사진을 찍어주면서 앵콜팀이 귀국한 후에도 훗날 쓰일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2차 피드백

하지만 사무국으로부터

- 캠페인 목적은 알리는 것이 취지이기에 빈곤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 OPA사람들의 문제를 더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빈곤퇴치를 위해 같이 활동하는 시간을 가지는 활동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사무국의 피드백을 통해 앵콜팀은 더 깊은 생각과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앵콜팀은 기존에 정했던 포토스튜디오에 덧붙여 정신적 빈곤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현지 YMCA 관계자와 소통을 하며 캠페인을 진행할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앵콜팀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들을 섭외하기 시작했습니다.

>>>> 3차 주제 선정

<첫번째 - 포토스튜디오>

일시

2019. 10.22 (화) 오전 8:30

장소

OPA커뮤니티 (Sen Sok City)

목표

사진 스튜디오를 통한 OPA 사람들의 정신적 빈곤을 치유해준다.

내용

1. OPA에 속한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여 OPA 사람들과 짧은 상담을 한다.
2. 자유로운 사진, 정면사진을 찍는다.
3. 프린트하여 OPA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두번째 - 빈곤 캠페인>

일시

2019.10.24 (목) 오전 9시~11시

장소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목표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빈곤의 다양성과 정신적 빈곤에 대해 알린다.

내용

1. OPA 사진을 붙인 물과 판넬을 준비한다.
2. 5가지의 판넬(SDGs, 빈곤 퇴치의 날, 빈곤의 다양성, YMCA/라온아띠/ OPA 설명, 사람들의 의견)을 전시한다.

Part 3

Campaign activity



포토 스튜디오



End Poverty Campaign에서 우리가 잡았던 외로움이라는 빈곤을 힐링하기 위해서 OPA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포토 스튜디오를 운영했습니다. 평소 부유하지 못한 생활로 가족사진, 독사진을 찍지 못한 분들에게 사진을 찍어드리고 선물로 드리면서 조금이나마 외로움을 달래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OPA 노인분들의 사진을 통하여 OPA 현실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OPA에 대해 설명해주는 용도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빈곤 캠페인 준비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 줄 물에 ymca, opa, 라온아띠를 포함한 배너를 붙였습니다.



SDGs, 빈곤 퇴치의 날, 빈곤의 다양성, ymca/라온아띠/ opa 설명, 사람들의 의견으로 총 5가지의 판넬을 만들었습니다.



End Poverty의 계획 실현을 위한 노력

1.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장소 섭외를 위한 노력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end poverty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계획하여 직접 현지 대학 관계자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저희 Campaign 활동에 대한 PT를 보여주게 되었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지 대학 관계자도 저희의 활동에 대한 취지에 깊은 공감과 기대감을 느낀다고 말씀 해주셨지만, 캄보디아의 나라 특성 상 정부의 허가 없이는 아무런 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차 장소로 생각했던 Central Market 장소 섭외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정부의 허가를 위한 노력

정부의 허가를 위해 저희 활동에 대한 목적과 일정을 정리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될 때 즈음에 현지 간사가 정부의 허락을 받으려면 기본 6개월은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3. YLC, YI 학부모님들을 위한 활동으로 계획변경

YLC, YI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변경하였고,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의 시간과 크메르어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고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YLC에서의 End Poverty

YLC 아이들을 대상으로 End Poverty Campaign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재희 단원이 Poverty에 대한 개념을 먼저 교육하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하나 같이 돈에 대한 Poverty만을 얘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앵콜팀은 Poverty의 다양한 종류를 설명해주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면 좋을지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집중하고 큰 관심을 가져 무사히 End Poverty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YI에서의 End Poverty Campaign

먼저 YLC에서 했던 캠페인 활동이 아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수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YI에서는 대학교 봉사자들에게 End Poverty Campaign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몰랐던 Poverty에 대한 정보와 빈곤퇴치의 날을 서로 얘기하면서 다양한 빈곤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했던 물을 통하여 OPA 사람들의 빈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Part 4

Feeling

POVERTY

Material
<It's not all about money>
<Many people think mainly>



Mental
<Not to be miss>
<It affects the rest of your life>
<Stress - Loneliness - Lethar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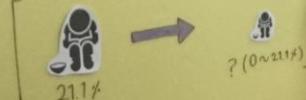
What Day is
17, October?

International Day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

Set by the UN (UNITED NATIONS)

To Fight **POVERTY, HUNGER**

To Reduce the percentage of the POOR



★ What is your Poverty?

not just economic side
but education 
hygiene 
environment ... 



>>>> 느낀 점

오정석

End Poverty 캠페인을 받았을 때 캄보디아 YMCA에서 OPA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였기에 OPA분들과의 캠페인을 진행하려 했으나 여러 문제들이 생겨 계획을 여러 번 바꾸게 되어서 처음 목적과 많이 달라져서 아쉽다.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지에 맞게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못했던 부분이 아쉬웠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라도 전달해 주어 빈곤의 다양성을 가르칠 수 있어서 유익했다 생각했다.

박정근

캄보디아에 와서 처음 하는 캠페인 활동이라 팀원들끼리도 의기투합하여 완벽한 캠페인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현지상황이 캠페인을 하기에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계획했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해야 할 때는 현지간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서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박정은

이전의 350ppm 캠페인 때 받았던 피드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번 End poverty 캠페인을 위해 팀원들과 열심히 논의하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 캠페인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준비했던 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때 상황적 요인을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다시 있다면 많은 사람과 poverty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박재희

이번 End Poverty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힐링 프로젝트 포토스튜디오를 통해 OPA 사람들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들의 생활 환경과 더불어 그들의 고민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YLC 아이들에게 End Poverty 교육을 직접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내용이 어려워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빈곤의 다양성을 알고 빈곤 퇴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유선

캠페인을 계획하고 진행할 시기엔 이미 캄보디아에 적응을 하고 있었기에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결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팀원들 뿐만 아니라 현지 간사님들도 지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에 1/10도 보여주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